

8

2017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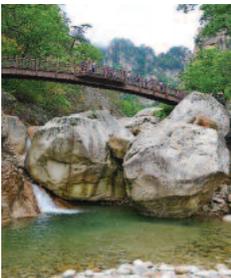
Vol. 268



오색 주전골 독주교



COVER STORY



오색 주전골 독주교
(사진제공 : 양양군 SNS 홍보기자 홍창혜)



양양소식 · 268호

| 발행일 2017년 8월 25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소식

Vol. 268

CONTENTS

희망양양

- 04 테마스토리 마을지역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양양교육지원센터
- 06 야양사람 양양군청 사이클 선수단, 군민과 함께 사이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 08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조계종조 도의국사 양양진전사에서 은둔수도하다.

의기양양

- 10 이달의 군정소식
 - 10 송이축제 · 연어축제
 - 12 카톨릭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 가속화
 - 13 양양종합여객터미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14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및 분리 배출 홍보
 - 15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양양지역 중 · 고 통폐합 추진
 - 16 서면 오색1리 새농어촌건설운동 2억원확보
 - 17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피서철 관람객 50%증가, 건국대 드림 선생님 진로캠프 진행
- 18 의정소식
 - 18 '양양군 폐기물관리예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19 진천군의회와 공동으로 수해피해 농가 지원

오감양양

- 20 이장통신 양양읍 사천리, 손양면 학포리
- 21 이게 최고자니 늙지 않는 열매 '아로니아'
- 22 양양에서 데이트 할까요
여름의 끝에서 꿈꾸는 엄마들의 휴가계획

연린양양

- 24 책이야기 품미 갤러리 / 양양도서관 9월 행사
- 25 정보꾸러미 8월 추천 일자리, 오피니언
- 26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 28 공익광고 송이축제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jsmj4@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자녀와 함께하는 진로교육

모든 지역민이 선생님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양양교육지원센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의 가장 큰 의미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함께 놀고 공부하며 다양성을 이해하는 아이로 성장한다는 뜻이다. 공동체가 붕괴되어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양양지역에서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마을 주민들은 누구나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선생님이 되는 것, 이러한 마을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양양교육지원센터(이하 교육지원센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부모 교육

양양교육지원센터가 지난 2015년에 문을 연 이래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학부모 교육이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진로교육특강이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학부모 놀이 지원단을 만들었는데 전래놀이 자격과정을 이수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전래놀이가 반응이 좋다.

올해는 방과 후 체험활동으로 관내 8개 학교에 60여 회 놀이 지원단이 찾아가는데, 놀이 지원단을 적극 지원하는 것도 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다.





청소년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활동

양양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별 프로그램, 특화된 교육 서비스 실시

대도시에 비해 지방 소도시는 교육의 혜택이 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교육지원센터는 양양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특화된 교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어항인 양양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이 설치됐는데, 관내 청소년들이 해양레저스포츠인 요트를 배우고 있다. 또 최근 양양이 서핑의 메카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양양고등학교 서핑 동아리를 구성하는 등 지역 청소년들이 서핑을 배우고 즐길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양양지역은 유치원 15개,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5개, 고교 2개 등 39개 학교에 2300여 명이 재학중이다. 그동안 교육행정 서비스를 비롯한 교육 프로그램을 속초 양양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해 양양지역의 교육서비스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15년 3월, 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교육청이 없는 양양군에 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학습능력이 부진한 학생들의 상담부터 영재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 교육공동체 만들기, 양양교육지원센터의 목표입니다.

얼마 전 양양교육지원센터는 현북면 하광정리의 공동육아 엄마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운영했다. 센터와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학부모들이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이처럼 교육지원센터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요청하면 직접 찾아가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하는 맞춤형 교육지원을 한다.

로그로 추진과 학부모 놀이 지원단, 자녀와 함께하는 교육 등으로 교육서비스의 폭을 넓혀 양양지역의 학부모와 지역주민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함께 성장하는데 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교육지원센터는 교육서비스 중심 역할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회의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대여하고, 학부모 독서모임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 프



부모교육



왼쪽부터 감독 박상택, 선수 김청수·전영재·오재석·김기훈·유연우·송영섭, 코치 이호식

양양군청 사이클 선수단, 군민과 함께 사이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국제 공인 사이클 벨로드롬(사이클 전용경기장)이 있고, 해마다 전국 단위의 사이클 대회가 잇따라 개최되는 곳. 도로를 따라 달리는 사이클 자전거를 보는 것이 일상이며, 사이클 대회가 열릴 때마다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쏟아지는 곳. 사이클의 메카로 불리는 양양군의 이야기다.

양양 사이클, 한국 사이클의 역사

지난 1991년 여자 팀으로 창단한 양양군청 사이클 팀은 96년 남자 실업팀으로 전환돼 현재 박상택 감독의 지휘 아래 전영재, 김청수, 유연우, 송영섭, 김기훈, 오재석 등 6명의 선수들과 이호식 코치가 활동하고 있다. 창단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선수단을 이끌어 오고 있는 박상택 감독과 이호식 코치는 양양군이 사이클의 메카로 자리하게 한 주역이라 할 수 있다.

양양군의 사이클 역사는 국내에 사이클 붐이 일기 전인 1962년 양양고등학교에 고등학교 최초로 사이클 부가 창단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70년대 사이클 전성기를 맞아 맹활약하며 양양을 사

이클 명문 고장으로 올려놓았고, 실업팀인 양양군청 사이클 팀 창단에도 초석이 됐다.

현재 양양군청 사이클 팀 소속 선수 6명 중 4명은 양양중학교부터 사이클 부 활동을 시작해 양양고를 거쳐 양양군청 사이클 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송영섭, 김기훈 선수는 각각 경기도와 인천에서 사이클부 활동을 하다가 더 나은 훈련 환경을 찾아 양양고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온 경우이다. 지난 2012년 개장한 국제 공인 사이클 전용경기장인 벨로드롬이 있고, 도로 훈련에 적합한 자연환경이 선수들을 양양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관심과 응원을 보내는 군민에게, 실력으로 보답하는 선수들

현재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오제석 선수를 비롯해 양양군청 사이클 팀은 김동영, 김철수, 유범진 등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했다. 해마다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관중들을 경기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2017 KBS배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에서 김철수와 오제석 선수가 나란히 2·3위에 올랐다. 또 '8·15 경축 국제사이클대회' 남자 일반부에서 전영재 선수가 3위를 기록하고, 단체 스프린트에서 양양군청이 동메달을 획득하며 양양은 사이클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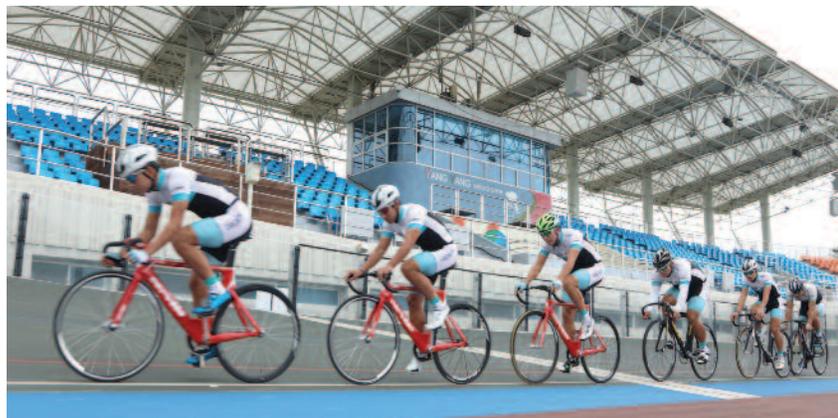
또한 사이클 전용경기장이 있어서 크고 작은 대회를 개최하고, 전지훈련 등으로 선수뿐 아니라 대회 관계자, 가족 등 연간 5,000여 명이 양양을 찾고 있어서 지역 경제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양양중, 양양고로 이어지는 사이클 부 출신의 동문들은 동문회를 따로 운영할 정도로 애정을 갖고 관심과 지원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창단 이듬해인 1992년부터 감독을 맡고 있는 박상택 감독은 양양이 사이클의 메카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군민들이라고 한다.

“사이클 대회가 열릴 때면 군민들이 경기장에 많이 찾아옵니다. 늘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고 또 지원해주는 군민들, 동문들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그만큼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양양 사이클 역사 55년, 양양군청 사이클 팀은 군민과 함께 양양 사이클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진전사지 3층 석탑

조계종조 도의국사 양양 진전사에서 은둔 수도하다

‘도의(道義)’는 신라 후기의 승려로, 법호는 명적(明寂), 시호는 원적(元寂)이며 도의는 법명이다. 성은 왕(王)씨로 북한군(北漢郡:漢城)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임신한지 39개월 만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의 출생과 입적의 연대는 알 수 없으며 8세기 후반부터 9세기 중반까지가 생애였던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선덕왕 5년(784)에 해로(海路)로 당나라에 건너갔으며 오대산

을 찾아가서 공중으로부터 종소리를 듣는 등 문수보살의 감응을 받았다고 한다. 그 뒤 광부(廣府)의 보단사(寶壇寺)에서 비구계(比丘戒)를 받고 조계(曹溪)로 가서 혜능(慧能)을 모신 조사당(祖師堂)을 참배하였는데, 조사당의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하며 이후 강서의 개원사(開元寺)로 가서 서당 지장(西堂地藏)에게 법을 물어서 의혹을 풀고 지장의 법맥을 이어받았다고 전한다.



진전사



진전사지 부도

또한 백장산(百丈山)의 회해선사(懷海禪師)를 찾아가서 법을 강의 받았는데 회해는 말하기를 “강서의 선맥이 모두 동국승(東國僧)에게 속하게 되었구나.”라고 칭찬하였다고 한다. 도의국사는 37년 동안 당나라에 머무르며 선법(禪法)을 터득하고 헌덕왕 13년(821)에 귀국하였다.

신라로 돌아온 도의국사는 “경전이나 해석하고 염불을 외우는 일보다 본연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심즉불(自心卽佛)’을 외치고 다녔는데, 당시 통일신라의 왕권불교는 왕즉불(王卽佛)의 엄격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왕은 곧 부처요, 귀족은 보살이고, 대중은 중생이니 부처님 세계의 논리와 위계질서는 사회구성체의 지배와 피지배 논리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통일신라의 승려와 귀족들은 도의선사의 무위법(無爲法) 즉 선(禪)을 믿지 않았으며 그의 외침을 ‘마귀의 소리’라고 배격하였다. 이를 목격한 도의국사는 아직 선법(禪法)의 시기가 오지 않았음을 깨닫고 북산북행(北山北行)을 향하여 신라 변경에 해당하는 설악산 진전사에 들어가 은둔하면서 40년 동안 수도에 전념하였다.

진전사의 장로(長老)로 주석(駐錫)하면서 제자인 염거화상(廉居和尚)에게 남종선(南宗禪)을 전하고 입적하였다. 염거화상은 제자 체징화상(體澄和尚)에게 선(禪)을 전하니 체징은 전라남도 장흥의 가지산 기슭에 보림사를 창건하여 가지산파(迦智山派)의 도량으로 크게 선풍을 떨쳤다. 그리하여 도의국사를 선종의 1조(一祖), 염거화상을 2조(二祖), 체징화상을 3조(三

祖)로 받들어 도의국사를 가지산파의 개산조사로 추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821년에는 이미 진전사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 그 시창(始創)은 늦어도 8세기 후반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 되는 바 현지에 건립되어 있는 3층 석탑의 각 부 양식과 기법을 고찰해 볼 때에도 8세기 후반에 건립된 석탑이므로 이때에 이미 진전사가 창건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헌(宗憲)에 ‘본종(本宗)은 신라 헌덕왕 5년에 조계 혜능대사(曹溪 慧能大師)의 증법손 서당 지장선사(曾法孫西堂智藏禪師)에게서 심인(心印)을 받은 도의국사를 종조로 하고 고려의 태고 보우국사(太古普愚國師)를 중흥조(中興祖)로 하여 이하 청허와 부휴 양법맥(淸虛浮休兩法脈)을 계승승(繼繼承)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一然)스님이 이곳 진전사에서 14세 때 머리를 깎고 득도(得度)했다는 사실이다. 이후 진전사에 어떤 스님이 계셨고, 언제 폐사 됐는지는 알 수 없다.

〈글·사진 : 양양문화원〉

7월 숨어 있는 향토사 이야기를 바로잡습니다.
 (8페이지) ‘조인벽의 본관은 한양으로 중국에서 귀화한 조원수의 5대 손이다.’ => ‘조인벽의 본관은 한양으로 중국에서 귀화한 **고려관료인 조지수의 5대 손이다**’로 바로 잡습니다.



즐기자! 오늘은 양양송이와 함께 양양송이축제 2017

죽은 나무에서 균이 발생하여 버섯으로 자라나는 것과는 달리 살아있는 소나무에서 균이 자라 인공재배가 불가능한 귀한 양양송이.

천년이 느껴지는 깊은 향과 단단한 육질의 양양송이를 21회 양양송이축제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 2017년 송이축제는 수확이 본격화되는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송이축제기간 방문객에게 가장인기가 있는 체험은 송이보물찾기이다. 양양송이가 실제 나오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체험장에서 소나무숲을 헤치며 양양송이 보물찾기를 하게 된다. 어른, 아이 외국인 할것없이 송이를 발견하면 모두 환호를 지른다. 체험객은 직접 찾은 송이를 한꼭지씩 가져 갈수도 있다.

표고버섯따기 체험은 표고버섯 재배단지에서 직접 채취할 수 있으며, 축제행사장내 송이직거래장터에서는 양양송이와 타 지역 송이, 표고버섯 등 각종 버섯과 낙산배 등 지역 특산물을 맛보고 살 수 있다.

또한 양양군의 대표 산림휴양시설인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송이밸리자연휴양림에서 송이

양양송이축제



2017. 9. 29 (금) ~ 10. 1 (일)

양양남대천 둔치 및 양양시장&송이산지

홍보관 및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목재문화체험장 및 짚라인 등 주변 관광지 체험 또한 다채롭게 즐길수 있다.

축제장과 연결 돼 있는 양양전통 5일장(4일,9일)장과 토요일 시장에서도 풍성한 과일과 곡식시장이 펼쳐져 가을의 향기를 듬뿍 맡을 수 있다.





양양에서 연어 낚시!

양양연어축제 2017
 2017. 10. 19(목) ~ 22(일)
 양양 남대천 둔치 및 부대행사장

제21회 2017양양연어축제는 10월 19부터 22일까지 4일간 이루어지며, 행사 인기체험인 연어맨손잡기는 9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축제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인터넷 신청자를 모집한다.

참가비는 30,000원(초등학생이하25,000원)으로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여 축제장에서 사용가능하다.

올해부터 연어탁본체험의 경우 서예가 등 인력을 증원해 대기열을 최소화하고, 유료로 전환(2천원)하여 지관통을 함께 제공해 보관 및 이동이 편해진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연어섬 문화공간에서는 커피와 디저트도 판매하며, 연어열차는 생태연어해설사의 안내로 행사장~연어사업소를 왕복 운행하는 상설행사가 되었다.

또한 축제장내 푸드트럭 및 향토음식점운영으로 다양한 축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이번축제에서는 낙산해변~남대천갈대숲~송이조각공원~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수산항 바다체험축제장 셔틀버스운

행으로 편한 이동 관광이 이루어 질수 있으며, 돛자리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여 축제장 구석구석에서 언제나 쉬었다 갈 수 있어 편안하고 여유있게 연어축제를 즐길 수 있다.



가톨릭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 가속화 전망 '매각을 통한 기능전환 원칙,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미설치'

8월 25일 가톨릭관동대 측, 우리군에 공식 입장 전달
양양군번영회 등 500여 주민 상경시위 취소 및 규탄현수막 철거

우리군이 가톨릭 관동대로부터 '양양캠퍼스 매각 원칙과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미설치'라는 공식 입장을 받아냄으로써 가톨릭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1995년 개교한 가톨릭 관동대 양양캠퍼스는 2008년 사회복지학과가 본교로 이전하면서 사실상 폐교됐으며, 그동안 우리군은 가톨릭 관동대 기능전환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 개최, 총장 및 주교 면담 등 기능전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가톨릭 관동대측에서도 양양캠퍼스의 기능전환을 위해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매각을 비롯한 중국 학원 유치, 관광휴양밸리 조성 등 다양한 개발 및 정상화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최근 가톨릭 관동대가 양양캠퍼스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부지 임대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양군번영회(회장 정준화)가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500여 주민들이 가톨릭 인천교구에 항의 집회를 계획하는 등 지역의 반발이 거세었다.

이와 관련해 우리군은 가톨릭 관동대측의 공식 입장표명을 요구했고 대학측은 8월 24일 관련 실무처장이 지역을 방문해 군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해 8월 25일 공문형식으로

로 답변서를 군청에 제출했다.

가톨릭 관동대는 총장명의로 답변서에서 기능전환과 관련해 '매각을 통한 정상화를 원칙으로 하며 최근 부지 매각협상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진 ○○업체와의 협상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것과 논란이 됐던 '양양캠퍼스(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 매각 대상업체가 원치 않을 경우 설치를 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업체가 원한다면 대학은 상호 협의한 기한 내에 철거하겠다'는 것을 밝혔다.

가톨릭 관동대측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우리군은 이를 공식 접수하는 한편, 지역에 실익을 가져올 최적의 시설이 설치돼 실질적인 기능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고 학교측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가톨릭관동대가 매각원칙을 공식 표명함에 따라, 양양군번영회는 8월 28일 예정되었던 인천 가톨릭교구 앞에서의 집회계획을 취소했으며 각 사회단체는 규탄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는 등 가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의 기능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조성사업 본격화 최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수요 반영, 13,000㎡ 규모로 확대 설치

우리군이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고속·시외버스 노선이 증가하는 등 터미널 이용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양양읍 송암리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신규 설치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우리군은 지난 2011년 여객터미널 이전 타당성검토용역을 통해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 일원 5,000여㎡ 규모로 터미널 이전계획을 수립했으나,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수요가 미반영 되고 주차공간 부족, 국도로부터 진입하는 감속차로 미확보 등 교통처리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올해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기존 속초 미시령 등을 이용하던 서울과 양양을 오가는 2개 운송사 26편의 고속버스가 모두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영동고속도로와 오색령(한계령) 등을 경유해 운행해온 시외버스 노선도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무정차 노선으로 전환되는 등 대중교통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반영하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성 확보, 인근 시설과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기존 계획보다 확장된 규모로 여객터미널을 조성하기로 하고, 최근 기

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다.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터미널 이전부지는 당초 계획보다 위치를 북쪽으로 일부 조정하고, 전체면적은 12,949㎡로 확대했다. 이중 터미널시설이 8,353㎡, 진입로 및 내부 도로가 4,596㎡이다.

군은 10개월간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공공디자인 심의, 실시계획 인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모두 포함했으며, 기간내 주민 및 의회 의견수렴을 모두 마쳐 내년 5월 용역 마무리와 동시에 공사에 착수, 2019년에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군관리계획을 변경 중에 있으며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확보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편 군은 최근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후 양양C를 빠져나온 대형버스들이 양양읍내를 관통하면서 교통체증과 이용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새 터미널 준공에 맞추어 44번 국도에서 송암리를 거쳐 터미널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4차선 군 계획도로 개설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문의 : 허가민원과 교통행정담당(670-2170)



기존 양양버스 터미널



터미널 이전 부지

‘낮 시간에는 쓰레기 배출하지 마세요!’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및 분리 배출 홍보 강화

마을별로 청결지킴이 지정 및 집중 홍보계도기간(8.28~9.01) 운영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몰 후부터 익일 7시까지 배출

낮시간 쓰레기 없는 양양군 만들기 캠페인

우리군이 도시미관 저해와 악취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낮 시간 쓰레기 없는 양양군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우리군의 경우 각 읍·면 환경미화원이 1일 한 차례 마을을 순회하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양양고속도로와 군도3호선 양양읍성터널이 개통되면서 44번 국도를 통해 시내권을 관통하는 차량이 크게 늘고 있어 거리에 방치된 쓰레기로 인해 도시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통해 낮 시간 쓰레기를 제로화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종량제 90% 달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생활쓰레기는 일몰 후~ 아침 7시까지만 배출 금요일 오후~일요일은 가급적 배출 자제

먼저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몰 후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하며, 주말에는 쓰레기 수거인력이 축소 운영됨에 따라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가급적 쓰레기 배출을 자제한다.

또 재활용품은 병, 캔, 플라스틱, 고철 등 품목별로 분리배출하고, 대형폐기물은 파손하지 말고 읍·면사무소에서 스티커를 구입·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군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읍면사무소 직원과 이.반장을 ‘청결지킴이’로 지정에 주기적으로 합동 계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현수막 17개와 전단지 2,000부를 제작·홍보할 계획이다.

9월 11일부터 음식물류 쓰레기 분리 배출 시범운영 아파트 18개소 및 낙산지역음식점 64개소 대상

한편 우리군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이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의 처리효율성 저하 및 시설 노후화의 원인이 됨에 따라, 9월 11일부터 관내 아파트 18개소와 낙산지구 음식점 64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문의 : 환경관리과 자원순환담당(670-2183)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변경안내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봉투에 담아 수거용기에 배출하세요!

일시 2017년 9월 11일 (월)부터

대상 공동주택 (아파트) 및 음식점 (낙산지구) 일반
하이텔라스, 서문주공, 영지무르미, 화오름, 유화, 로말, 양양코아루, 정아 1·2차, 대신 2·3차, 열림, 상스일, 성정빌리지, 산호, 심미, 바다마을, 바다이조빌

분리배출

구분	공동주택	음식점
배출방식	종량제봉투 (2, 3, 5L)	종량제봉투 (10, 20L)
내용	음식물쓰레기용 종량제 규격봉투(종색)에 넣은 다음 배출	

배출시간 일요일 ~ 금요일 (18시 ~ 익일 07시) 배출

종량제봉투 판매장소 일반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장소

종량제봉투 가격

종량제 봉투 가격	2L	3L	5L	10L	20L
가격 (원)	40	60	90	170	340

* 일반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장소: 동일

배출시 주민협조 사항

- ▶ 종량제 봉투의 묶음표시선을 초과하여 쓰레기를 담으면, 음식물이 흘러내려 악취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주세요.
- ▶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배출해주세요.
- ▶ 이쑤시개, 배다귀, 털, 견과류 껍데기, 핵과류의 씨 등 각종 이물질 등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주세요.
- ▶ 음식물 등 이물질이 혼합된 상태 또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양양군 환경관리과 ☎ 670-2186

서면 오색1리 새농어촌건설운동 2차 평가 2억원 확보

2015년 첫 선정 후 산채음식체험관 등 기반시설 구축 향토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도약

2015년도에 강원도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된 양양군 서면 오색1리 마을(대표 임승엽)이 올해 이뤄진 강원도 2차 평가에서 상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에서 오색1리 마을은 선정 당시 받은 3억원의 시상금으로 마을의 향토자원을 체험관광화 할 수 있는 '산채음식 체험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사업지속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았으며 주민들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농촌마을로 발전

할 가능성을 높이 평가 받았다.

오색1리 마을은 이번 상사업비로 산채음식체험관 건립을 완료해 자체 생산된 산채와 약초, 전통장, 허브, 각종 채소류 등을 활용하여 전통 음식을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운영해 도시민 유치를 위한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8월 11일 농촌진흥청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복합공간 조성 시범사업 '설악오색가마터' 준공

8월 11일 서면 오색1리 마을회관 인근에 150.4㎡ 규모의 농특산물 전시판매 와 문화복합공간인 설악오색가마터가 준공됐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으로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됐으며 도자기 체험과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병행할 수 있는 두 공간으로 조성됐다.

오색1리의 일부인 백암(白岩)마을은 하얀 흙이 많아서 유래된 지명으로 과거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기를 굽는 백자 가마터(사기막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마을에서는 새로 개설된 설악오색가마터를 활용해 주민들이 직접 빚은 도자기를 만나볼 수 있는 도자기 전시장과 함께 산채와 옥수수, 전통장, 허브제품, 감자옹심이, 감식초 등 지역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하고,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오색1리 마을은 앞서 조성된 오색전통장 농촌교육농장과 오색허브농원 등 다양한 체험·휴양시설이 있어, 설악오색가마터의 도자기 체험과 연계해 지역을 대표하는 농촌체험마을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담당(670-2336)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양양지역 중·고 통폐합 추진

양양중·고와 양양여중·고를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통폐합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19년 3월 중학교 45개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는 지난 2월 14일 군민복지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양양지역은 중고등학교 병설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지난 4월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820명 중 1,193명인 65.5%가 찬성, 중·고 분리 동시 전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810명 중 1,199명인 66.2%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양양군남녀공학추진위원회(위원장 정준화)가 구성되었고, 위원회의 주관으로 6월 22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각각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월 18일~31일 학생, 학부모, 동문, 지역사회단체,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대상인원 1,693명중 905명이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81.1%가 중고등학교 통폐합에 찬성하였다.

8월 9일 위원회는 양양중·고와 양양여중·고를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통폐합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향후 세부적인 통·폐합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사용할 학교를 선정하고 교육과정 운영 등 세부적인 후속 논의를 위해 교육지원청 담당부서와 양양중·고, 양양여중·고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통·폐합 학교 선정은 T/F팀을 거쳐 추진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고등학교가 통합될 경우 양양여고 학생들의 자연계열 미개설에 따른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며, 학급 증설에 따른 교과목 교사 확충, 양양고 학생들 중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정보처리반 선택의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고등학교 진학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통합에 따라 공부하기 좋은 최적의 학습환경을 갖출 예정이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미래사회에 적응할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제공 및 문의 : 양양교육지원센터 671-9873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피서철 관람객 50% 증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이후 관람객 큰 폭 증가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석기유적인 오산리유적(사적 제394호)에 자리한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이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이후 지난 8월20일까지 19,405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의 여름철 관람객은 매년 소폭 하락세에 있었으나, 올해 여름철은 동해안권 관광객이 8.7%나 줄어든 상황임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평소 관람객의 20%내외를 차지하는 단체방문객이 줄어든 반면 가족단위 관람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수도권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박물관 홍보활동을 한 것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 여름,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이 새롭게 준비한 '조각난 토기를 복원하라!', '퍼즐 맞추기 게임' 등 신석기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은 미리 준비한 300세트가 전량 판매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군은 고속도로 개통이후 박물관 관람객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람객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겨냥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보강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수도권권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건국대 드림선생님, 2년째 여름방학 진로캠프 진행

현서분교 등 초·중·고 100명 대상,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건국대 대학생 100명이 2년째 양양을 방문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캠프를 진행, 지역 청소년들이 미래 비전과 꿈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는 제49대 총학생회 '청춘어람' 주관으로, 드림(Dream) 선생님이 불리우는 100여명의 대학생들이 7월 31일부터 8월3일까지 3박4일동안 양양지역 8개 초·중·고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봉사활동(이하 '교활')을 펼쳤다.

초등학생에게는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보고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자아탐색과 자아초상화 만들기, 세계 문화체험, 직업체험교실 등을 진행하고, 중학생은 자기탐색 과정을 통해 본인의 적성을 찾을 수 있는 심리연극, 그리스 로마신화를 통해 배우는 인성과 자아시간을 운영했다.

대학진학을 앞둔 고등학생에게는 '나의 캠퍼스 생활', 동아리·연애·알바 이야기 등 후배들이 궁금해 할 이야기를 강연하고 '1대 1 멘토의 학과선택 상담' 등 진로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좀 더 넓은 시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꿈을 심어줬다.

이번 교활을 이끈 양양 출신 최현탁 건국대 부총학생회장은 "고향 후배들이 진로캠프를 통해 자신들의 꿈을 만들고 키워가고 이루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2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양양군의회(의장 이기용)는 지난 8월 11일 제22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음식물류 쓰레기분리수거제는 하이팰리스를 비롯한 17개의 아파트와 낙산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음식물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거점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으로 수집 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게

된다.

양양군의회는 기본 20ℓ 외에도 김장철등을 대비해 50ℓ, 100ℓ 봉투도 제작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와 관련 소각로처리 능력이 일일 30여톤인데 반해 반입되는 쓰레기가 40여톤이 넘어 밴딩 후 적치된 쓰레기가 많음을 지적하며, 기술진단을 거쳐서 소각로를 증설 등 대책만전을 요구하였다.

진천군의회와 공동으로 수해피해 농가 지원

8월3일 양양군의회 이기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2016년 1월 13일 자매결연협약을 맺은 충북 진천군의회와 함께 여름철 수해를 입은 진천군 산척리 이병중 농민의 피해농가를 방문하여 일손돕기를 실시하였다.

양 의회의원들은 비닐하우스 정리, 수확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한 수박 제거 및 잡초 제거 등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고 수해 피해를 격려하는 등 피해농가의 지원에 앞장섰으며, 양의회간 상호협력 및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케이블카 관련 문화재청 항의 방문 및 가톨릭관동대 기능전환 촉구 방문

양양군의회 이기용 의장, 오한석 의원, 이영자 의원은 지난 8월 2일 문화재청을 방문, 문화재보존국장과 면담을 갖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결정 취지에 맞는 허가처분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문화재청 조현중 문화재보존국장과 면담을 통해 양양군의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6월 15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부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에 문화재청은 현재까지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아 양양군민은 엄청난 실의에 빠져 있다.”며 “오색케이블카는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신청한 사업이 아닌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모두를 만족시키는 시설이며 국민들이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기 위해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처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4일에는 이기용 의장을 비롯한 양양군의회 의원들이 가톨릭관동대를 방문해 천명훈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 10년째 폐교된 양양캠퍼스가 조속히 정상화 되어 주변 지역 경기침체를 회복하고 지역에 실익을 줄 수 있도록 기능전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Tel.033-670-2801



이장통신

우리 마을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마을이장님!
이장님을 통해 마을 소식을 듣고 주민들과 공유하는 코너, 이장통신.
우리마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양양읍 사천리 (박상형 이장님)~

올해 사천리에 호박풍년이라면서요?

네~우리 사천마을이 양양군 기업형 새농촌 활성화를 위해 소득작물 웰빙식품인 호박을 심었습니다. 그 호박이 아주 주렁주렁 풍성하게 달렸네요~



그 많은 호박은 어떻게 하셨나요?

얼마전 8월12일 호박을 수확하여 마을 어르신들과 외빈들을 초청해서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호박죽, 단호박찜 등 간식도 내놓았고, 호박밥을 지어서 식사도 대접했지요~

수확한 호박은 판매도 하고, 비누공방등 체험활동도 해보았답니다.

잔치에 빠질 수 없는 풍물놀이와 기타공연등 마을분들과 손님들이 호박잔치동안 즐거워 하셨네요~ 그리고 호박판매금액 등 일부를 마을에서 장학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즐거운 잔치에 장학금전달까지~!! 정말 의미있는 시간이었겠네요~



손양면 학포리 (최선봉 이장님)~

우리 학포리마을에서 건강교실이 열렸습니다.



건강교실이라면 어떤내용이 었나요?

네~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을 모셔 5주동안 요실금 관리방법 및 운동을 배웠습니다. 지난 8월17일은 5주차 마지막 수업에서는 수강자 12명 전원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날에는 금연교실을 다니고 싶은데, 거리가 멀어 못가시는 마을주민을 위해 마을회관에서 이산화탄소측정 등 금연클리닉을 운영했어요.



마을분들 반응은 어땠나요?

5주차 수업동안 빠짐없이 출석하면서 식이배노일지를 5주동안 빠짐없이 직접 작성,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 졸업후에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참가 후 담배를 끊어야겠다는데 금연교실에 만족하셨답니다. 건강교실 덕분에 우리 학포리가 담배연기없는 건강마을 될 거 같습니다~!!

건강마을 학포리 정말 멋집니다~!!

이기(이게) 최고자니!

늪지 않는 열매
'블로매'를 아시나요?

'양양 아로니아'



아로니아 냉동 건조 분말

중세시대에는 이 열매를 왕족이 즐겨먹어서 킹스베리라 불리었고, 동양에서는 늪지 않는 열매라 하여 '블로매'로 불리었다. 블루베리보다 알이 조금 더 작고 단단한 열매, 바로 '아로니아'이다.

아로니아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아로니아가 함유한 안토시아닌은 무려 포도의 80배, 블루베리의 7배, 아사이베리의 5배라고 한다. 그 외에도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유기미네랄인 칼슘, 철분, 마그네슘, 카데킨, 비타민 ACE등을 함유한 슈퍼푸드라 미국 아칸소 아동영양센터에서 선정한 100여가지 항산화 대표 식품중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아로니아가 함유한 아토시아닌의 경우 항산화 물질로 면역력 강화, 노화방지, 피로회복, 암이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며, 망막의 시각에 관여하는 로돕신 합성을 도와 현대인의 눈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서 모세혈관을 강화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한다고 한다.

양양의 뜨거운 태양과 험한 바람,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은 아

로니아가 안토시아닌을 생성하기 아주 적합한 환경이다. 게다가 청정한 양양의 공기는 껍질 채 먹는 열매인 아로니아 재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양양의 아로니아야말로 설악의 바람과 해풍이 키워낸 청정 열매인 것이다.

보통 7,8월에 수확되는 이 좋은 양양의 아로니아를 이제는 1년내내 먹을 수 있다.

생과즙이 좋은 아로니아 원액부터, 휴대하여 먹기편한 분말까지 양양의 아로니아를 양양물에서 편하게 만나볼 수 있다.

아로니아는 탄닌성분이 많아 단맛을 제대로 느낄수 없지만 탄닌은 시간이 지나 숙성되면 그 맛이 적어지므로 냉동실에 보관하였다가 그냥 먹거나 주스, 잼 또는 샐러드로 먹을 수 있고 최근 유행하는 효소를 만들어 먹어도 좋다.

원액의 경우 하루 1~2회 식후, 우유나 꿀 요구르트에 섞어 먹으면 먹기편하며, 분말의 경우 우유나, 요구르트에 티스푼으로 하루 2~3회 식후 3~4스푼 타먹거나 샐러드에 뿌려먹거나, 밥이나 떡 등 다양한 요리 재료로도 쓸 수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추석, 가족의 건강을 위해 아로니아 원액과 분말을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

구매처 : 양양몰(<http://www.yangyangmall.co.kr>)
☎670-2704



여름의 끝에서 꿈꾸는 엄마들의 휴가 계획



여름도 끝물이다. 방학과 휴가시즌도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는 8월, 여름방학 내내 집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잠시도 쉬지 못했던 엄마들은 개학과 함께 숨 돌릴 여유가 생겼다. 집안일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여행이 그리워진다. 수고한 엄마들을 위한 가을맞이 여행을 계획해본다. 호젓한 자연을 벗 삼아 한가하게 즐기는 엄마들의 휴가 미리보기!



마음에 먼저 그려보는 오색찬란한 가을 풍경 오색 트래킹

가을은 주위 풍경의 빛깔을 바꾸며 찾아온다. 하늘은 더욱 짙푸르고, 들뜬 금빛으로 물들어가고, 나무들이 색색으로 단장하기 시작할 때, 주저 없이 그 빛깔의 향연 속으로 빠져들고 싶어진다.

여러 빛깔이 담긴 '팔레트'처럼 다채로운 매력을 품고 있는 오색으로의 가을 트래킹을 계획해 보자. 오색을 즐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코스가 있지만 가볍게 즐기기에 오색약수터에서 용소폭포탐방지원센터까지 가는 주전골 코스가 좋다. 푸르다 못해 투명한 물빛과 풀꽃이 자아내는 소담한 풍경, 푸른 하늘을 떠받친 기암괴석의 장대한 기魄과 눈이 부시게 쏟아져 들어오는 단풍의 자태는 가을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설레게 한다. 번잡했던 일상은 잠시 잊고, 가을의 빛깔을 호젓하게 즐겨보자.

TIP

오색하면 '물'이 좋기로 유명하죠. 오색온천 입구 주차장으로 들어서면 노천족욕장이 있으니 가볍게 피로를 풀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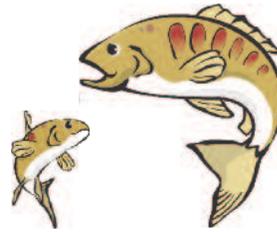


잊지 말고 달력에 체크하자! 가을축제

조금 더 활기찬 가을 여행을 계획한다면, 즐길 거리가 풍성한 축제 현장을 찾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가을 축제 목록에는 양양의 송이축제와 연어축제도 빠지지 않고 들어있다. 올해 양양 송이 축제는 9월 29일부터 남대천 둔치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양양전통시장 일원에서 3일 동안 펼쳐지는데 각각의 축제장마다 장소의 특징을 살린 송이보물찾기, 송이볼링대회, 송이밥 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어 축제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다. 해마다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연어 맨손잡기 체험을 비롯하여 연어열차 생태체험 등 연어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축제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경험은 비슷한 일들로 채워진 일상에 신선한 감각을 선사한다.

TIP

외국인 송이채취 현장체험과 송이보물찾기 체험 그리고 연어맨손잡기 체험은 사전신청을 통해 접수를 받습니다. 축제 홈페이지(tour.yangyang.go.kr) 를 확인해주세요.



자연이 차려준 푸짐한 가을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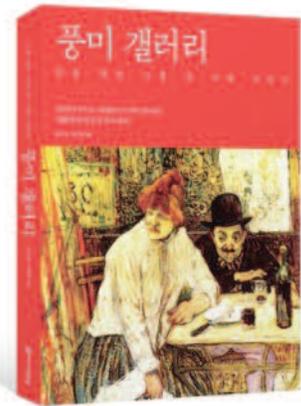
가족의 끼니를 늘 신경 써야 하는 엄마들에게 '남이 차려준 밥'은 언제나 반갑다. 이번 여행에서는 푸짐한 가을 밥상을 받아보기로 한다. 단풍이 곱게 내려앉은 가을 산을 한껏 즐기고 산 아래에서 맛보는 산채비빔밥과 도토리묵은 일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함을 선사한다.

조금 더 호사를 누리면 산자락에 보물처럼 숨어있는 송이를 맛보자. 소나무 뿌리에서 자생하며 영양분을 공급받는 송이는 해마다 기온과 습도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져 귀한 식재료로 알려져 있다. 맛과 향이 뛰어나 다양한 요리에 쓰이지만 그 풍미를 더욱 살려줄 돌솥밥으로 즐겨 봐도 좋다. 송이향이 가득한 밥 한 그릇에 양양의 품에서 나온 자란 재료들로 정성껏 차려낸 가을밥상이 여행의 맛을 더욱 살려 줄 것이다.

책 이야기

명화로 음식과 풍속을 만나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먹는일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현재의 우리들은 배고픔을 모르지만, 반세기전만해도 먹는다는 것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것입니다. '풍미 갤러리'는 미술 평론가 이주현씨와 법의학자 문국진씨의 공저로 '먹는것'을 다양한 그림과 함께 그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흐'라는 서양화가가가 있습니다. 고흐의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하리만큼 노란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889년작 꽃병에 꽃힌 열네송이 해바라기라는 작품을 봐도 온통 노란색이니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자는 이책에서 고흐는 압생트라는 술을 많이 마신 결과 황시증을 유발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다시말해 압생트를 마신 다음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노란빛에 매혹되어 더욱 압생트를 과음했고 그 결과 얻어낸 작품이 꽃병에 꽃힌 열네송이 해바라기라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음식관련 그림은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다른말인 '식구'라는 말도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유의 친근감 표현인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말도 있듯, 인간관계에 있어 식사를 함께 먹는 것 만큼 마음의 벽을 빨리 허물수 있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그림을 감상할 때 보는 사람마다, 보는 각도마다, 각각 다른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더욱이 음식이 등장하는 서양화를 보게될 때 상징성을 모른



풍미갤러리
 문국진, 이주현 저
 이야기가 있는집

더불어 읽으면 좋은[冊]

- 현대미술은 처음인데요
 안휘경 공저, 행성B읽새, 2017
- 옛그림이 쉬워지는 미술책
 윤철곤 지음, 탐, 2014
- 생각의 미술관
 박홍순 지음, 웨일북, 2017

다면 그저 눈으로만 그림을 감상하기 쉽습니다. 화가들은 자신의 그림에 꼼꼼하게 음식을 그린 이유가 있을테니까요. 이 책은 저자의 설명을 들어야만이 보여지던 미술작품을 스스로 그림을 보는 안목과 이해를 점점 넓혀가게 도와주고 있는 재미있는 미술이야기입니다.

(양양교육도서관 사서 황연중)

2017년도 9월 독서의 달 행사 | 멋져요 한권 더 책으로 여는 행복한 우리세상 | 2017. 9. 1.(금) ~ 9. 30.(토)

분야	세부사업명	행사일시/기간	대상	내용
공모	“나에게 도서관은 <input type="text"/> 이다” 공모	9.1(금)~9.30(토)	누구나	도서관 의미 작성하여 스티커붙이기
체험프로그램	동화속 주인공 캐릭터 만들기	9.2(토)~9.3(일) 10:00-12:00	초등 20명 신청:8.23~8.31	클레이아트 체험
	동화속 보물찾기	9.2(토)~9.3(일) 13:00-15:00	유아 5~7세(부모동반) 신청:8.23~8.31	피자&액채괴물 만들기 등
독서 프로그램	도서교환전	9.5(화)~9.16(토)	누구나	잡지, 기증도서 1인1회3권 제한
	사서추천도서 게시	9.5(화)~9.30(토)	누구나	신간, 인문학, 진로탐색도서 등
	‘책 대출 두배로 day’	9.27(수)	도서대출회원	대출권수 10권
	연체해방 DAY!	9.1(금)~9.30(토)	연체일수100일 미만 회원	대출정지를 대출 가능으로 변경
	다독자 및 우수이용자 시상	9.30(토)	도서대출회원	일반, 초,중,고,가족, 순회 문고 상장&상품권시상

※ 문의 : 담당자 주무관 양재현(☎672-2679) yjh68@korea.kr

오/피/니/언

양양사람은 동지선달에 발가벗겨놓아도 30리를 뚫다?

양양출신 노창현(손양면 학포리 출신)씨는 고속버스에서 '양양사람은 동지선 달에 발가벗겨놓아도 30리를 뚫다'며 지역민을 폄훼하는 발언을 듣고, 손수 국립중앙도서관을 찾아 역사에 근거한 자료를 군청 홍보게로 보내주셨습니다. 양양을 사랑하는 의견 소중히 잘 받았기에 소식지에 게재합니다.

지난 1995년 정부가 도농지역 통합을 추진했을 당시 강원도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삼척 등 대상에 오른 대부분 지역들이 인접 군과 통합에 성공했지만, 양양군과 속초시만 유일하게 성사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오랜 세월 양양군의 일부로 속해 있다 1963년 '시'로 승격한 속초시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비롯됐다거나, 양양사람들이 이별난 기질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겠다. 하지만 양양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면 우리 지역의 뿌리 깊은 정서와 속마음, 자긍심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양양은 1919년 삼일운동 당시 참가인원이나 피해규모, 투쟁양상을 봤을 때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가장 격렬하고 규모가 큰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던 지역이다.

양양의 만세운동은 유림 출신으로 향후 민족주의 통합단체 신간회 강원도 지부장을 지낸 '이석범'과 여성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조화벽'이 주역이 되어 서막이 올랐다.

1919년 4월 3일부터 일주일 동안 조국독립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6천여 명의 군중이 만세시위를 이어갔으며, 특히 농민들이 모내기

철임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뒤로한 채 중추세력으로 참여하는 등 무서운 단결력을 보여줬다.

비교적 온건하게 진행된 만세운동은 4월 4일 양양장날 시위에서 '함흥기' 열사가 첫 희생을 당하면서부터 무력항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4월 9일 진행된 현북면 기사문리 시위에서는 일본 군경의 무차별적인 총탄 세례에 9명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당하는 등 최악의 참상을 겪게 된다. 오늘날 이곳 언덕은 만세고개로 불리고 있다. 양양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사망 13명, 부상 73명, 수형 172명의 인적피해가 발생했으며, 태형 등 고문을 당한 사람이 1,230명에 이른다. 또 전체 인구 7만 명의 5퍼센트가 괘씸죄 등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노역을 당하게 된다.

이렇듯 격렬한 만세운동을 펼친 양양군민을 두고 일본 군경은 '양양사람은 동지선달에 발가벗겨놓아도 30리를 뚫다'고 손사래를 쳤다고 한다. '양양하와이'라는 비아냥도 여기서 유래하지 않았나 싶다.

오늘날 양양은 인구 3만 명 채 되지 않는 작은 지자체지만, 여전히 양양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토대로 여전히 대단한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양양에 사는 주민이라면 과거 선조들의 위대한 역사를 바로 인식하고,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게 이야기해 야하지 않을까?

(자료: 우리산하에 인문학을 입히다. 홍인희 지음, 주식회사교보문고, 2013)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8월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도시과
TEL. 033)670-2289
FAX. 033)670-2303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양양새마을금고	1명	총무사무원 (경력자)	09:00~18:00 (주5일)	월190만원 이상
(주) 다인	1명	무역사무원 (중국어)	09:00~18:00 (주5일)	월200만원 이상
(주)한샘개발 (낙산버치호텔)	2명	룸메이드	09:00~18:00 (격주5일)	월185만원
스위트호텔 낙산	1명	프론트 직원	교대근무 (이간근무필수)	월150만원 이상
오션벨리조트	1명	프론트 직원	교대근무 (이간근무필수)	월160만원
GS25 낙산버치호텔점	1명	계산대수납원	07:30~15:30	시급6,500원
각두굴 식당	1명	주방보조원	09:00~21:00	월180만원 이상
양양군환경지원센터	1명	설비운전직	4조3교대	연2,400만원
초원환경산업(주)	2명	폐기물 분리선별원	08:00~18:00	월150만원 이상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8월 추천 일자리

양양군 여성회관 2층
TEL. 033)670-2890~3
FAX. 033)670-2456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강원송이산영농조합	2명	생산직	주5일09:00~18:00	월 140만원
청따오양꼬치	1명	주방보조원	주6일17:00~23:00	월120만원
꿈을주는어린이집	1명	보육교사	주5일08:30~18:00	월180만원
강릉최기두부	1명	물품검수원	주6일09:00~17:00	월140만원
(주)후찬	1명	주방보조원	격주휴무6시~15시/9시~18시	연봉2,160만원
청곡어린이집	1명	보육교사	주5일08:30~18:00	호봉기준
(주)골든에스앤씨	2명	음료판매원	주6일09:00~21:00	월185만원
	2명	서빙원	교대근무	월180만원
(유)양양지활 환경지원센터	1명	경리사무원	주5일09:00~18:00	월150만원
	1명	재활용분류원	주5일09:00~18:00	월136만원
낙산요양원	1명	요양보호사	4교대근무	협의
	1명	조리원	2교대근무	
	1명	간호사(조무사)	주5일09:00~18:00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7년 8월 15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사람 또는 법인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1장의 고지서에 함께 고지 합니다.

〈과세연도 중 부동산 거래 시 당해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 매수자
-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 → 매도자
- ※ 거래시점은 잔금지급일 등 취득의 시기를 의미함

※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 연도 중 소유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

□ 부과대상 및 납부기간

- 주택분(10만원 초과시 나머지 1/2), 토지분
- : 매년 9월(납기 : 9. 16 ~ 9. 30)

□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 가상계좌이체
-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민원실 신용카드 납부

□ 문 의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 033-670-2107, 2148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 설치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공간(주방, 거실 등)마다 1개씩

□ 구입방법 :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인근소방기구 판매점 등

□ 문 의 : 양양소방서 ☎033-670-0423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1.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2. 돛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3. 풀밭에서 용변보지 않기
4.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풀이 우거진 곳)
5. 작업시에는 일상복이 아닌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6.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7. 야외활동 후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8. 야외활동 후 샤워나 목욕하고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사업

□ 접수기간 : 2017.6월~12월

- * 매월 1~10일, 단 10월의 경우는 연휴 등을 감안 1~13일까지
- * 11월 1차 신청시 2회만 지급, 12월 1차 신청시 1회만 지급

〈구직활동 특별지원〉

□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군내 주소자로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 신청대상

- 저소득층 및 장기실업청년, 대학생구직자, 특성화고교 등 고등학생 구직자, 창업기업 패전직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청년 종사자, 취업업 교육 이수청년(신청연령 : 만15세이상 34세이하)
- 경력단절여성, 세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주부 (신청연령 : 54세이하)

□ 지원내용 : 강원상품권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

□ 문 의 : 양양군청 경제도시과(☎033-670-2708) 및 읍면사무소

〈구인기업 취업성공 특별지원〉

□ 접수처 : 양양군청 경제도시과

□ 지원조건

- * 사업체 : 신청일 현재 군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근로자 3명 이상 업체로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에 2017.1.1일 이후 신규 취업된 자
- * 청년도민 :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자

□ 신청대상

- 만15세이상 34세이하 신규 취업자가 있는 업체에서 직접 신청

□ 지원내용 : 강원상품권 15~50만원씩 (월 임금에 따라 차등) 3개월간 지급

□ 문 의 : 양양군청 경제도시과(☎033-670-2708)

어르신 문화예술단 “어깨동무”신규 단원모집

□ 모집기간 : 연중상시 모집

□ 모집강좌 : 댄스스포츠, 실버악단, 오키리나, 합창단

□ 모집대상 : 양양군 거주자로 문화예술단에 관심이 있는 어르신 (만 60세 이상)

※ 예술단 활동을 위해서는 복지관 회원 가입 필요(신분증 지참)

□ 활동내용 : 교육 참여 후 공연활동(지역축제, 행사 등)

□ 교육장소 : 양양군 노인복지관 내 프로그램실

□ 접수방법 : 양양군노인복지관 방문 접수(양양읍 일출로 540)

□ 접수문의 : 양양군노인복지관 1층 사무실(☎673-2685)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알림

2017년 7월 1일 기준(2017.1.1~6.30까지 토지이동분)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2017. 9. 2 ~ 9. 29(20일간)
- 장 소 : 군청 지적정보부서 및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 신청방법 :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
-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지적정보부서 ☎033-670-2789

2017 관광두레사업 주민사업체 모집

- 모집분야 :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사업 분야
- 대 상 : 관광사업 창업 및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주민사업체로 강원도 양양군 지역주민을 포함한 5인 이상의 공동체
- 지원내용 : 사업계획 수립, 역량강화, 멘토링, 파일럿사업, 홍보마케팅지원
- 문 의 처 : 강원도 양양군 관광두레프로듀서
김석기(☎010-8878-3895)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건강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매년 25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 조사대상

- 조사대상자는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의 대표성 있는 가구를 선정 후, 해당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을 조사

□ 조사시기

- 2017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조사내용

-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손상, 삶의 질, 의료이용 등 조사

□ 조사방법

- 선정된 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실시

*조사 완료 후 감사의 마음으로 조사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 지급

□ 협조사항

-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사진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 대상가구를 방문하오니,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개소

강원인권사무소가 2017.6.1. 원주시에 개소하였습니다. 인권상담, 진정 사건조사, 인권교육·협력사업을 통해 강원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누구나 상담과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진정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합니다.

.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과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1 또는 강원인권사무소
(☎033-813-9940, Fax 033-813-9945)

□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

□ 우편·방문 : 강원인권사무소(26392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73, 4층)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 인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2017년 제1회로 개최되는

[그랑블루 페스티벌 2017]

강원도 양양 죽도 해변 일대를 배경으로

'물'을 테마로 한 영화, 영상, 벽화, 설치미술 등의 다양한 문화 예술 작품들을 다루는 페스티벌입니다.

- 장 소 : 강원도 양양 죽도해변 일대
- 기 간 : 2017년 9월 22일 (금) ~ 9월 24일 (일)
- 주 최 : 그랑블루 페스티벌 기획단
- 후 원 : Main sponsors / 코웨이㈜
- 협 찬 : 미디어 & 시네마 스튜디오 블루
- 블로그 : <http://blog.naver.com/grandbluefest>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송이축제

양양송이축제

Yangyang Song-i Festival

송이愛만하고

향기에 취하얏

2017. 9. 29(금)~10. 1(일)

양양 남대천 둔치 및 양양시장&송이산지



송이현장체험

외국인 송이채취 현장체험
송이보물찾기
송이 스탬프ラリー
달팽이우체국

상설행사

송이밸리 견학
양양송이 직거래 장터
표고버섯따기 체험
지역특산물 전시판매
송이볼링대회

맛 체험 행사

송이 먹거리 식당
송이밥 시식
송이향이빵
송천떡 만들기
송이쿠키 만들기

문화·예술 행사

탁장사대회
거리 퍼포먼스
송이캐릭터 공연
7080 공연

참가신청 양양군청 문화관광과 033)670-2723~4

주최 양양군 주관 양양군축제위원회 <http://song-i.yangyang.go.kr>

